

여수 앞바다 40% '바다사막화' 진행

서삼석 의원 '해역별 갯녹음 현황' 완도 18%·고흥 11.5%·해남 9.7% 바다숲 사업 관리 대책 마련 시급

■ 전남 해역별 갯녹음 현황

행정 구역	조사 년도	조사면적 (ha)	면적(ha)			갯녹음 비율(%)			
			정상	진행	심화	정상	진행	심화	
남해	광양시	2015	0.5	0.5	-	-	100	-	-
	여수시	2015	1,449.1	870.1	435.5	143.5	60.0	30.1	9.9
	순천시	2015	0.7	0.7	-	-	100	-	-
	보성군	2015	24.2	24.0	-	0.2	99.2	-	0.8
	고흥군	2015	630.8	558.2	56.1	16.5	88.5	8.9	2.6
	장흥군	2015	33.2	33.0	-	0.2	99.4	-	0.6
	강진군	2015	7.2	6.7	-	0.5	93.1	-	6.9
	완도군	2015	1,515.7	1,245.7	185.9	84.1	82.2	12.3	5.5
	해남군	2015	207.3	187.2	5.1	15.0	90.3	2.5	7.2
	무안군	2010	1.2	1.2	0	-	100.0	0.0	-
서해	신안군	2010	110.3	101.1	9.2	-	91.7	8.3	-
	진도군	2010	3.1	3.1	0	-	100.0	0.0	-

12.3%, 심화 5.5%)에서, 고흥해역은 630.8ha의 11.5%인 72.6ha에서, 해남해역은 207.3ha의 9.7%인 20.1ha에서 바다사막화가 진행 중이었다. 보성·장흥·강진해역에서도 갯녹음이 나타났다. 이들 해역은 모두 남해해역이다. 서해해역에서는 신안에서 갯녹음이 진행(8.3%) 중이었다. 이처럼 바다사막화가 심각한 수준인데 바다숲 조성 사업 후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전남도 바다숲 조성은 2010년 2곳 110ha를 시작으로 매년 1~3곳씩 올해까지 9년 동안 모두 15곳 1630ha를 조성했다. 하지만 올해 바다숲 조성사업 사후관리는 여수시 5곳, 완도군 3곳, 무안군 1곳 등 총 9곳 596ha로 36.6%만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다숲 조성사업은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조성사업 이후 3년간 관리를 수행하고, 이후부터는 지자체로 이관돼 사후 관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서삼석 의원은 "바다사막화는 연안생태계 기능 회복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대 사안인데 전남해역의 바다생태계가 빠르게 황폐해지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바다숲 조성 사업의 사후관리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여수 앞바다 조사면적 40%에서 바다사막화가 진행되는 등 바다 생태계가 빠르게 황폐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바다사막화는 무안·진도 등 서해해역보다는 여수·고흥·완도 등 남해해역이 훨씬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무안신안)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역별 세부 갯녹음 현황'에 따르면, 전남 연안 가운데 여수해역은 조사면적 1449ha의 40%인 579ha에서 갯녹음이 진행 중(435.5ha, 30.1%)이거나 이미 심화(143.5ha, 9.9%)됐다.

갯녹음은 연안 암반 지역에서 해조류가 사라지고 흰색의 석회 조류가 달라붙어 암반 지역이 흰색으로 변하는 현상으로, 바다사막화를 뜻한다.

완도해역은 1515ha의 17.8%인 170ha(진행



55km 세계 최장 중 강주아오 대교 개통 23일(현지시간) 개통된 세계 최장 강주아오 대교의 모습. 이날 중국 광둥성 주하이항에서 개통식을 가진 강주아오 대교는 홍콩과 주하이, 마카오를 잇는 총연장 55km로 22.9km의 교량 구간과 6.7km 해저터널 구간, 터널 양쪽의 인공섬, 출입점 시설 등으로 구성됐다. /연합뉴스

'말 많고 탈 많은' 강진의료원 특별감사

전남도, 환경미화 요원 내년 7월까지 정규직 전환

김영록 지사 도정 답변

간부 간호사의 태움·갑질 사건(광주일보 5월31일자 6면) 등 '말 많고 탈 많은' 강진의료원에 대해 전남도가 특별감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또 용역직인 청사 환경미화요원을 내년 7월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3일 전남도의회 제326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이 같이 답변했다. 김 지사는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강진)이 강진의료원에 대한 방만 경영에 대해 질타하자, 특별감사 의지를 밝혔다.

차 의원은 이날 강진의료원 재할의학과 폐지와 부당한 조직·인사관리 문제, 경영 적자 문제 등을 따졌다. 또 의료원 환자관리 서비스 문제, 간호사 태움 사건, 전남도 파견공무원 관리 부재, 각종 수당 지급 문제 등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공공의료기관으로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면서 "전남대병원 우수 전문인사 파견 확대 등 우수 의료인력 확보와 함께 전직원 워크숍, 친절, 청렴교육 실시로 책임의식을 함양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청내 환경미화요원을 내년 7월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는 이보라미 의원(정의당·영암)이 이날 열린 도정질문에서 "환경미화요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체 구성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대한 전남도의 답변이다.

최종선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전남도·군로자대 표단·외부전문가 등 20인 이내로 정규직전환협의회를 12월 구성해 협의를 거쳐 내년 7월 용역기간이 끝나는 미화요원들을 정규직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정규직 전환 대상·방식·시기·임금체계·채용방식 등 합의점 도출을 위해 정기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다.

도정 시설관리 용역직은 환경 31명을 포함해 시설 17명, 조경 4명, 안내 4명, 관리 2명으로 모두 58명이다. 용역 기간은 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말까지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과학기술진흥원장에 안기석 전 국장 선임

재단법인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제5대 원장에 안기석(63·사진) 전 광주시 국장이 선임됐다.

광주과학기술진흥원은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고 원장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2명 중 광주시 국장을 역임한 안기석 후보를 5대 원장 후보자로 결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추천해 승인을 받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23일 "원장후보추천위의 평가결과와 공직 경험을 살린 조직운영 리더십, 지역에 대한 이해도 측면을 감안한 것"이라며 "광주과학기술진흥원 고유의 차별화된 기능 확보를 위해 경영



과 기획 능력을 겸비할 필요가 있어 이사회에서 선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신임 안 원장은 오는 29일 취임할 예정이다. 3년 임기로 경영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안 신임 원장은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석사)을 졸업하고, 광주에서 노인복지과장, 자치행정과장, 대변인, 체육U대회지원국장 등을 역임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송정역 '호남의 관문'으로 만들어야" "광주형 일자리 신기루 아닌 미래세대 꿈"

광주시의회 시정질문

광주 송정역을 '호남의 관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무창 광주시의원(민주·광산2)은 23일 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송정역이 지역경제 거점형 KTX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만큼 시가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하고 계획성있는 행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속철도만 개통하고 수년간 지지부진하던 송정역복합환승센터 건립이 백지화된 점은 광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없었기 때문이며 하루 2만 명 가까이 이용하는 송정역 부근의 교통체증과 혼잡은 물론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 문제로 광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현재 광주송정역은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은 비록 백지화됐으나 최근 64만㎡에 5800억원이 투입되는 지역경제거점형 KTX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정부 예산을 최종 통과했다.

또 조석호(민주당·북구4) 의원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현재 상황이 안타까움을 넘어 자괴감이 들기까지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광주시, 현대차, 노동계가 서로 불신하며 비공식채널만 가동하고 있다"며 "일단은 테이블에 앉아 난상토론, 끝장토론 등 할 수 있는 토론은 모두 해보며 지금까지 제기됐던 임금 부분, 근무형태 등 쟁점사항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또 "광주형 일자리는 신



임미란 시의원 정무창 시의원 조석호 시의원

기루가 아닌 미래 세대의 꿈이다"면서 "희망으로 출발의 뜻을 올렸던 지역을 되살려 광주형 일자리를 꼭 성공시켜 미래세대에 대한 기성세대의 의무를 다하고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임미란(민주·남구3) 의원도 이날 "미래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광주시 차원의 투자와 정책 개발이 절실하다"면서 "세계 도시들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스마트시티 조성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만큼 광주시도 미래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을 통해 미래 먹거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유럽, 일본, 싱가포르, 중국 등 세계 주요 나라 중앙 정부와 도시들이 앞다퉀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도시가 가치창출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면서 "광주시 또한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인간과 기술이 공존하는 사람 중심 스마트시티에서 미래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2018 고봉학술대회

호남 유학의 개척자들

- 고봉과 그의 시대 유학자 -

2018.10.26.금

대학생 토론회(10:00-12:00)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1호관 313호 현공세미나실

고봉 학술대회(13:00-18:00)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1호관 106호 이을호기념강의실

제1부 '우리는 누구와 가족이 될 수 있을까? 대학생 토론회'

10:00-10:30 결선진출 1팀 토론
10:30-11:00 결선진출 2팀 토론
11:00-11:10 휴식
11:10-12:00 결선

제2부 고봉 학술대회

13:00-13:30 등록·사회 : 송광일(전남대)
13:30-13:35 환영사(김삼호 광산구청장)
13:35-13:40 개회사(양순자 철학연구교육센터장)
13:40-14:20 고봉 기대승의 인심도심과 천리인유에 대한 일고(一攷)
발표: 이형성(전주대) / 논평: 이은혁(한국전통문화대)

14:20-15:00 인심도심의 일원문화 : 노수신 심문의 경험적 읽기
발표: 서영이(조선대) / 논평: 이항준(전남대)

15:00-15:15 휴식
15:15-15:55 미암 유희춘의 가(家)의 이상과 실제
발표: 박미애(서울대) / 논평: 정학섭(전북대)

15:55-16:35 하서 김인후의 도덕 감정론
발표: 정영수(전남대) / 논평: 김경호(전남대)

16:35-16:50 휴식
16:50-17:50 종합토론
좌장: 이장희(경인교육대)

17:50-18:00 토론대회 시상식 및 폐회
18:00-20:00 만찬

주최 광산구 주관 전남대학교 철학연구교육센터
후원 전남대학교 인문역량 강화사업단 · 전남대학교 HK+가족커뮤니티 연구단 · 광주기싸문헌공공중